

보해 소주 '전라도 정도 1000년' 홍보 나선다

광주시·전남도와 협약
엠블럼 사용 천년주 출시
청년창업 지원·장학금 기탁
이달중 라벨 디자인 공모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기념하는 술을 만든다. 보해양조는 지난 7일 전남도청



보해양조는 지난 7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들과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엠블럼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서재필실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엠블럼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와 광주시 박병호 행정부시장, 전라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 등이 참여했다. 보해양조는 기념주 판매 수익금 일부를 청년창업 지원금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보해는 협약서에 따라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을 기념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도 천년 기념주 한 병 판매될 때마다 지역 인재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10원씩 적립해 기탁한다.

보해양조는 전라도 정도 천년 엠블럼이 사용되는 만큼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념주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민 약 1100명으로부터 맛과 향, 제품 이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는 방문객이 많은 관공서나 대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해는 전라도의 맛과 멋을 담은 천년 기념주를 제작하게 된다. 보해는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

해 지역민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천년 기념주 이름과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전도 열린다. 보해는 2월 중 천년 기념주 이름과 소주병에 부착될 라벨 디자인 공모전을 시작한다. 총 상금은 1300만원이며 출품된 아이디어는 보해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양조는 지난 68년 동안 호남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써

전라도에 어울리는 천년 기념주를 출시하기로 했다"며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도약하는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보해양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엠블럼은 새가 알을 품고 날갯짓하는 모습을 형상화 했으며 천년이란 역사를 가진 전라도가 새천년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다는 의미를 담았다. /최재호기자 lion@

대우, 동부대우전자 인수 광주·전남 中企 절반 "설 자금사정 어려워"

대우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대우위니아의 사업구조 다변화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동부대우전자 인수를 강력히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위니아의 매출이 김치냉장고 '딤채'에 편중되면서 상반기에는 적자를 내다가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하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어 내수 비중이 높은 대우위니아로서는 해외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연협뉴스

34% "상여금 지급 못 해"

광주·전남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2018년 광주·전남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6.5%가 자금 곤란을 호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2016년(41.4%), 2017년(45.3%)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금융기관 협조 등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는 매출감소(6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판매대금 회수 지연(32.7%), 원자재 가격 상승(32.7%)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또 설 명절 자금으로 업체당 평균 1억4900만원이 필요하지만 1억 5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 조 회회수(32.6%)나 결제 연기(27.2%) 등의 방법으로 설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 자금 부족의 어려움이 거레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 올해 '지급계획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들은 65.9%로 지난해(70.2%)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지급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5.3%로 지난해(21.6%)에 비해 3.7%포인트 증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 포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중단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8일만으로, 해외 사업 부실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인수 철회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수차례 '치고 빠지기'를 한 호반건설의 전력을 감안,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호반건설은 8일 보도자료를 내 "내부적

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대우건설의 해외 사업 우발 손실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을 접하며, 과연 우리 회사가 대우건설의 현재와 미래의 위험 요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진행했다"며 "아쉽지만 인수 작업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인수자로 선정된 지 8일 만으로, 호반의 인수전 철수 배경에는 전남 대우건설의 연간 실

적발표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4분기 대규모 해외 손실이 발생한 게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공시에서 모로코 사파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기자재 재제작과 관련, 3000억원의 잠재 손실을 반영했다. 호반건설은 해외사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대우건설의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매각에 참여했다. 여기에 추후 돌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외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면서 인수 포기로 이어졌다는 게 건설업계측 해석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07.62 (+11.06)
- ↑ 금리 (국고채 3년) 2.27% (+0.02)
- ↑ 코스닥 861.94 (+31.98)
- ↑ 환율 (USD) 1087.90원 (+1.30)

광주·전남 노후 건축물 35만4000개

광주·전남 지역에서 준공된 지 30년 이 넘는 건축물만 35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2017년 말 기준)은 전국에서 26만1270동으로, 전체(712만6천 526동)의 36.5%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5만375동(전체 14만1693동의 35.6%), 전남은 30만4389동(전체 63만6734동의 47.8%)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지어진 지 35년 이상된 건물도 3만7169동에 달했고 전남은 27만 3020동이 준공된 뒤 35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은 전남(47.6%), 제주(37.4%), 경북(36.7%) 순으로 높았고 아파트는 세종(79.7%) 다음으로 광주(73.8%)가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은 555m인 서울 롯데월드타워(123층)로, 광주지역은 동구 학동의 35층짜리 공동주택, 전남에서는 광양시 중동의 48층짜리 공동주택이 최고층 건축물로 조사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국세청 여성 상공인과의 대화

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방문 현장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형)은 8일 오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지회장 김부덕)를 방문해 여성 중소기업인 30여명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은형 광주청장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제행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적극 추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강화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세금신고와 납부자 선순환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 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기 위해 상시적인 '공감소통' 제도를 운영해 신규창업·중소상공인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은형 청장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가세되고 소비를 증가시켜 중소기업인의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소득주도 성장, 분배 개선, 사회통합 강화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물건(추천) 무안콘도

무안 망운 리조트
광주에서 40분

최고물건
임대(월1,500만 가능)

토지 744평
건물 290평
(아파트형, 객실 28개)

경매일 : 2월 26일

감정가 23억
최저가 12억8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2월초 개강)

- 1) 이론 실전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 2) 실전 투자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개조 + 실전경매+실전투자
- 3) 경매 평생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 ① 화순군 도곡면 (무인텔) 감정가 38억7천 → 최저가억4천 1천
- ②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가 32억2천2백 → 최저가 14억 토지:1105평 건물:1201평
- ③ 북구 문흥동 중흥아파트(24평) 감정가:1억3천3백 → 최저가:7천5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추)대신경매

- 1)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토지:1004평 건물:750평 감정:3억2천4백 → 최저:2억2천
-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 3) 광산구 수원지구 (근린주택) 감정 7억2천 → 최저 7억2천
-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 9억 3천 → 최저4억 2천
-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 7백 → 최저:1억8천7백
- 7) 남구 월산동 (근린주택) 감정:9천6백 → 최저9천6백
-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 9) 광산구 수원동 (주차빌딩) 감정 9억3천 → 최저 6억5천
-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 11)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임야) 토지:3306평 감정:3억1천 7백 → 최저:1억7천7백

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

-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 ④ 남구 진월동 한신아파트 (34평) 감정 1억9천5백 → 최저 1억 3천6백
- ⑤ 북구 운암산로아루레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 ⑦ 광산구 수원동 대반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 ⑧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 ⑪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⑫ 광산구 박호동 (토지) 감정 1억9천 → 최저5천5백

010-6670-9800 062)382-5500